

봄바람처럼 상큼한 변우혁의 방망이



1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시범경기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KIA 변우혁이 2회에 타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가 1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시범경기 6차전에서 8-1 대승을 거뒀다.

전날 3-3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던 두 팀은 초반 팽팽한 마운드 싸움을 전개했다.

두산에서는 기대주 최승용이 선발로 나와 4회 2사까지 퍼펙트 행진을 했다. 특히 2회 1사에서 변우혁을 시작으로 김호영-김규성-주효상-홍종표-김도영까지 6타자 연속 삼진을 잡아냈다.

KIA도 '좌완'들로 두산 타선을 붕괴했다. 선발로 나온 양현종이 첫 타자 김대환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은 뒤 로하스는 2루 땅볼, 허경민의 3루 직선타로 처리했다. 2회에는 김재환에게 선두타자 안타는 맞았지만 이후 세 타자를 범타로 돌려세

**“첫 홈경기 편하고 공 잘 보여”
2루타·홈런 ... 장타 폭발**

KIA, 시범경기 두산에 8-1 승

웠다. 강승호의 방망이를 헛뜰게 하면서 탈삼진도 추가했다. 박유연-이우찬-김대환을 상대한 3회도 삼자범퇴.

양현종은 4회 첫타자 로하스에게 이날 경기의 세 번째 탈삼진을 뽑아낸 뒤 예정보다 일찍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경기 전 김종국 감독은 '60구'를 예고했지만 45구에서 양현종의 등판이 끝났다. 3.1이닝 1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 직구(26개) 최고 구속은 144km, 평균속은 140km. 양현종은 체인지업(11개·127~130km), 슬라이더(6개·124~129km), 커브(2개·115~119km)도 구사했다.

두 번째 투수로 '루키' 광도규가 마운드에 올랐다. 허경민을 마주한 광도규가 4구째 승부 끝에 1루 땅볼을 만들었다. 김재환과의 승부는 2구째 포수 땅볼 아웃이었다.

5회에는 이의리가 출격했지만 시작과 함께 신성현에게 2구째 149km 직구를 공략당해 좌월 솔로포를 허용했다.

이후 강승호를 중견수 플라이로 잡은 이의리가 김민혁과 박유연을 연속 삼진으로 처리하면 추가 실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범경기 첫 등판에서도 '제구' 숙제를 남

겼다.

이의리는 최고 151km의 공을 뿌리면서 여전한 구위를 보여줬지만 이날 던진 56개의 공 중 27개가 볼 판정을 받았다. 기록은 3이닝 4피안타(1피홈런) 2볼넷 3탈삼진 1실점.

이의리는 변우혁의 활약 속에 승리 투수가 됐다. 이의리는 변우혁의 활약 속에 승리 투수가 됐다.

0-1로 뒤진 5회말 변우혁이 최승용을 흔들었다. 좌측으로 공을 보낸 변우혁은 2루까지 향한 뒤 김규성의 볼넷, 주효상의 좌전안타로 만들어진 1사 만루에서 홍종표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홈에 들어왔다. 김도영의 적시타를 더해 3-1 역전에 성공한 KIA는 8회 4점을 만들었다.

선두타자 김도영이 중전안타에 이어 도루를 기록한 뒤 이창진-이우성의 연속 안타 그리고 황대인의 희생플라이가 이어지면서 6-1까지 점수가 벌어졌

다. 그리고 변우혁이 1사 2루에서 김지용의 124km 슬라이더를 좌중간 담장 밖으로 보내면서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홈런 포함 멀티히트를 기록한 변우혁은 "첫 타석에서 삼진 먹을 때 심투 부분이 있어서 두 번째 타석에서 다른 변화구는 버리더라도 직구는 놓치지 말자는 생각으로 2루타를 쳤다"며 "홈런은 슬라이더를 주로 던지는 투수였고 바깥쪽 들어오는 슬라이더를 노리고 있었다. 몸쪽 가운데 실투가 들어오면서 안 놓치고 나가면서 친 게 좋았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안방에서 경기를 치른 것에 대해서는 "첫 홈경기가 주말 경기여서 응원 많이 받고 그래서 더 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편한 것 같다. 타석에 들어가도 마음 편하고 공도 잘 보인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톡톡 튀는 KIA 신인 광도규 “영어도 잘 해요”

소크라테스·앤더슨도 감탄

톡톡 튀는 요즘 신인, 광도규가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풍성한 좌완들 덕분에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민(?)이 하나 더 늘었다. 퓨처스 캠프에서 시즌을 준비했던 광도규가 까다로운 투구폼과 배정되는 피칭 그리고 빠른 직구로 경쟁에 불을 붙였다.

자체 연습경기에서 눈도장을 찍으면서 시범경기 선수단에 합류한 광도규는 한화, 키움전 2경기 에 나와 2이닝 1볼넷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19일 두산을 상대로도 좋은 피칭을 선보이며 '0'의 행진을 이어갔다.

0-0으로 맞선 4회 1사에서 양현종에 이어 등판한 광도규는 허경민과 김재환이라는 쟁쟁한 선배들을 만났다. 결과는 6개의 공으로 1루, 포수 땅볼을 유도하면서 0.2이닝 무실점.

마운드에서 신인의 패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는 턱아웃에서도 '요즘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남다른 영어 실력으로 앤더슨과 친해진 광도규는 소크라테스도 "영어 실력이 정말 좋다"고 감탄할 정도다. 영어를 배운 이유도 과정도 남다르다.

광도규는 "지난해부터 조금씩 영어를 공부했다. 나중에 외국인 선수들 만나면 물어볼 게 많을 텐데 못 물어보면 역할할 것 같아서 꾸준히 조금씩 공부했던 게 도움이 됐다"며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해서 미국 드라마 많이 봤고, 영어 공부하는 앱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공부했다. 앤더슨이 많이 알려줘서 배우고 있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계속 말하면서 많이 친해졌다"고 웃었다.

광도규는 같은 유형으로 공을 던지는 김대환도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다.

좌완 스리쿼터인 광도규는 "상대하게 될 타자들보다 비슷한 유형일 것이고 배울 게 많아서 막 붙어 다니고 있다. 선배님도 이런 유형을 만나는 게 처음이라고 캐치볼할 때도 같이 하자고 하셨다. 오늘은 PFP(Pitcher Fielding Practice)에 대한 팀도 알려주셨다"고 말했다.

출발은 좋다. 앞으로 매서워질 타자들의 방망이를 상대해야 하고, 프로의 높은 벽도 실감하게 되겠지만 공정의 자세로 성장하겠다는 각오다.

광도규는 "고등학교 때는 부정적이고 소심하게 생각했다. 사이드로 팔을 내리고 나서 말라졌다. 그 전에는 야구를 잘하면 드는 감정이 '다행이다. 그래도 못하지 않았다'였는데 지금은 즐겁고 행복하다"며 "생각보다 기회가 빨리 오기는 했는데 무조건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습경기 때도 해왔던 대로 재미있게 하자는 생각이었다. 손승락 퓨처스 감독님이 투수들에게 자신감을 많이 심어주셨다. 안 좋은 순간도 올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빨리 잊고 다음 준비할 것 같다"며 "빠른 직구도 있지만 변화구도 좋다(웃음). 1군 와서 계속 말씀해주시는 게 뭔가 새로운 것을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지금 하던 대로 꾸준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PL 50번째 도움... 토트넘은 사우샘프턴과 무승부

손흥민(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통산 50번째 도움을 기록했으나 팀은 리그 최하위 사우샘프턴과 무승부에 그쳤다.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은 19일(한국시간) 잉글랜드 사우샘프턴의 세인트 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 EPL 2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사우샘프턴과 3-3으로 비겼다.

승점 1만을 더한 토트넘은 4위(승점 49·15승 4무 9패)를 유지했다.

두 경기를 덜 치른 5위 뉴캐슬 유나이티드(승점 47·12승 11무 3패)에 승점 2차로 쫓기게 됐다. 역시 26경기만을 치른 3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승점 50·15승 5무 6패)와는 승점 1차이다.

/연합뉴스

광주FC, 아사니 해트트릭 ... 인천에 5-0 대승

'이정효 매직'이 5-0 대승을 불렀다.

광주FC가 지난 18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의 K리그 2023 4라운드 경기에서 5-0 대승을 거뒀다. 최근 2연패에서 벗어난 광주는 홈 첫 승도 장식했다.

알바니아 국가대표로 발탁된 아사니가 K리그 2023시즌 1호 해트트릭을 장식했고, 이희균과 엄지성 마수결이 골로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광주가 기대했던 골들로 만들어진 화려한 승리.

광주는 수원삼성과의 시즌 개막전에서 아사니의 골로 1-0승리를 거뒀다. 이후 FC서울과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연달아 0-2패를 기록했다.

잘 싸우고도 뒷심싸움에서 밀렸고 득점도 나오지 않았다. 서울전에서는 엄지성이 원맨쇼 끝에 골을 넣었지만 공격자 반칙으로 무효골이 됐다. 엄지성은 이 경기에서 연달아 경고카드를 받아 퇴장당했고, 팀은 0-2패를 남겼다.

그만큼 앞선 두 경기의 아쉬움을 날린, 앞으로의 시즌을 기대하게 하는 인천전 승였다.

일단 이 감독이 강조하는 '광주답게'가 1부리그에서도 통하고 있다. 광주는 '무조건 공격'을 하면서 모든 선수가 전방위적으로 공수를 소화한다.

이 감독은 18일 경기가 끝난 뒤 "준비한 대로 박스 안에서 과감하게 도전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마무리가 잘 됐다. 과정이 좋으면 결과가 따라온다. 2연패는 했지만 잘하려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준비했던 것 포기하지 말자고 했던 게 잘 됐다"고 언급했다.

패배라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면서 대승으로 연패를 끊은 광주. 이 감독이 주목하는, 기대하는 선수들도 골로 응답했다.

아사니는 이 감독의 주문을 제대로 이행하며 세 골을 몰아넣었다.

이 감독은 "아사니가 경기 끝나고 알바니아 대표팀에 합류하는데 가기 전에 골 넣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첫 골 넣고 나서 두 골 더 넣으면서 승리 선물을 주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추진력 좋은 선수가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골이 나왔다"고 웃었다.

이날 아사니는 전반 8분 선제골을 만들었다.



아사니

엄지성과 이희균의 골도 이 감독을 웃게 했다. 퇴장 징계에서 복귀한 이날 엄지성은 '속죄골'을 넣었다.

전반 19분 정호연이 오른쪽에서 때린 공이 골키퍼를 지나 반대쪽 골대 옆에 있던 엄지성에게 닿았다. 엄지성은 오른쪽으로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고, '진짜 골'을 만들었다.

이 감독에게 가장 잔소리를 많이 듣는 선수 중 한 명이 엄지성이다. 광주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지만 더 큰 선수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만큼 더 혹독하게 몰아붙이는 것이다. 엄지성도 이를 알고 있기에 쓴 소리를 보약 삼아 자신을 키워가고 있다.

엄지성은 "인천에서 데뷔골을 기록했는데 그때 생각이 났다. 퇴장 당하는 바람에 전북 경기를 못 뛰었는데 득기를 품었다. 형들, 코칭스태프와 모든 팀원들한테 미안해서 더 잘 준비를 하고 그 경기 결과로 이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첫 골을 넣은 엄지성은 후반 4분에는 이희균의 골을 돕기도 했다.

정호연에게 패스를 받은 이희균이 뒤에 있던 엄지성에게 공을 넘기고 골대 앞으로 전진했다. 이희균은 엄지성이 찰라준 공을 잡아 골키퍼를 마주하고 오른쪽으로 공을 때리며 기다렸던 골 순간을 만끽했다.

이희균은 이내 벤치로 달려가 이 감독과 뜨거운 포옹을 했다. 이희균은 시즌 개막전 미디어데이에서 이 감독이 '기대되는 선수'로 꼭 짚어 언급한 선수다. 기대대로 시즌 시작부터 좋은 페이스로 경기를 풀어나갔던 이희균은 마침내 마수결이 골도 기록했다.

"감독님 눈이 정확하다"며 웃은 이희균은 "너무 기대했던 순간이다. 지난해 그렇게 골이 안 들어 가서 마음 고생 많이 했다. 오늘 계기로 한 골 두 골 계속 쌓고 싶다. 성격이 내향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감독님이 끌어내주신다. 성질이 있는데 자극 주시고 하니깐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나오는 것 같다. 자극 받아서 더 열심히 한 것 같다. 이번 골을 계기로 더 자신감 있게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